

누구나 에릭과 비가 될 수 없다!

조원희 · 문화평론가

비, 마케팅적 윤희유?!

지난 2002년 「나쁜 남자」라는 노래로 데뷔한 싱어 비. 그는 잘생긴 얼굴과 균형 잡힌 몸매, 그리고 댄스 실력과 스타일 강한 보컬로 많은 팬을 양산하는데 성공했다. 대중음악 관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비롯한 오락 프로그램들 속에서도 비의 인기는 더욱 커져갔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비'만으로 팬들은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비'나 '상대 연예인과 잡담을 나누는 비'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단순히 대중음악인을 그냥 음악인으로 가둬두는 것은 많은 대중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그의 소속사는 2004년 그를 연기자로 전격 데뷔시킨다. 안정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연기자 송혜교와 함께하는 드라마 「풀하우스」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전까지 연기 경력이라곤 전무하다시피 했던 비가 첫 번째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은 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호평을 받았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이런 놀라운 재능을 지닌 아티스트가 그동안 연기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인가. 성공이라는 결말을 본 이후 거꾸로 검산을 해보면 성공 요인은 100% 비가 지닌 재능 때문만이 아니었다. '못하지 않은 평이한 연기'였지만 2년간 쌓아온 비의 인기와 지명도가 드라마의 성공에 큰 도움을 준 것이었고, 드라마의 성공이라는 상승작용에 힘입어 비의 연기력이 더욱 인정받게 된 것이다. 주인공의 인기가 드라마의 화제성을 상승시키고, 그

화제성에 의해 주인공은 더욱 인정받게 된다는 도식이 성립된다. 물론 비가 대사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일관했다면 드라마의 화제만큼 무능함이 강조됐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새 비는 아시아 각국에서 최고 스타로 손꼽힌다. 인도네시아의 시골 옷가게에서 일본말로 인사하는 점원에게 한국인임을 밝히면 「풀하우스」의 주인공 'Rain'을 사랑한다'며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한다. 그리고 준비된 카세트테이프로 비의 노래를 틀기 시작한다. 이것은 비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적어도 아시아권 내에서는 멀티



드라마 「풀하우스」에서 연기를 보여줬던 비

안정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연기자 송혜교와 함께하는 드라마 「풀하우스」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전까지 연기 경력이라곤 전무하다시피 했던 비가 첫 번째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은 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호평을 받았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대중음악계뿐만 아니라 영화계나 방송계에서도 자신들의 작품에 마케팅적 유효가 돼줄만한 멀티 엔터테이너를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뭔가 히트상품이 등장하면 너도나도 그것을 따라가고 천편일률적인 패턴의 대중문화가 펼쳐진다는 데 있다. 멀티 엔터테이너 지향은 철저하게 개인의 재능과 가능성에 맡겨져야 할 것이지만 멀티 엔터테이너를 처음부터 지향하고 전문적인 재능보다는 호환성에만 목숨을 거는 경우에는 실패할 수 있는데 엔터테이너들을 양산하게 돼 있다.

엔터테이너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다.

어쨌든 비는 이후 멀티 엔터테이너로 각광받게 되었고, 몇 편의 드라마에 주연을 맡았으며, 이번엔 한국 최고의 영화감독으로 손꼽히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아시아권 내에서 그동안 그 뛰어난 상업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영화' 내지는 대중들의 접근이 힘든 '실험영화'라는 레이블을 달고 팔려왔다. 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스타인 비가 주인공이라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는 제목을 만나게 되면 「폴하우스」처럼 한없이 대중적인 아이템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긴 하다. 어쨌든 멀티 엔터테이너 비의 캐스팅으로 마케팅적 유연성이 획득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이제 내수 시장을 넘어 전 아시아권을 석권하려는 노력 없이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대중음악 시장에서 비와 같은 모범적 마케팅 성공 사례가 나왔으니 거의 모든 대중음악 아티스트들이 비를 지향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대중음악계뿐만 아니라 영화계나 방송계에서도 대중음악인으로, 큰 유명세와 인기를 지니고 있는 아티스트로, 자신들의 작품에 마케팅적 유효가 돼줄만한 멀티 엔터테이너를 요청하고 있다.

‘유서 깊고, 세계적인’ 멀티 엔터테이너 지향 현상

사실 멀티 엔터테이너 지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대 남진과 나훈아가 대중음악계의 양대산맥으로 군림하고 있을 때 남진과 나훈아가

함께 출연한 영화만 다섯 편에 이를 정도로 그들은 다양한 활동을 했다. 조용필도 1980년대 영화에 출연했으며 이상은이 자신의 히트곡에서 제목을 따온 영화 「담다디」 등 3편의 영화에 출연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1990년대 초반부터 김민중은 연기와 노래를 아우르는 활동을 하며 큰 인기를 얻어왔고, 그 계보를 임창정이 이어왔다. 멀티 엔터테이너의 계보를 연기자로 세력을 확장한 대중음악인만 따질 것이 아니다. 드라마 「사랑과 진실」로 큰 인기를 얻었던 임채무는 드라마의 히트 직후 음반을 내면서 대중음악계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박영규 역시 드라마 히트 직후 음반을 출시하기도 했다. 최근엔 홍경인, 안재모, 박신양, 최민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경력을 지닌 연기자들이 음반을 발표하면서 대중음악계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멀티 엔터테이너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멀티 엔터테이너 지향은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다. 서구 팝 음악 사상 가장 인기 있었던 솔로 아티스트 엘비스 프레슬리는 30여 편 이상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고, 비틀즈도 자신들이 주연한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연기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원래 뮤지션이었지만 연기자의 길에 들어서 뮤지션이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였던 아티스트들 역시 많다. 「식스 센스」의 브루스 윌리스가 그랬고 「SOS 해상기동대」의 데이비드 핫셀호프 역시 음반을 발표한 뮤지션 출신이다. 하이틴 팝 스타에서 진지한 영화배우로 변신한 경

우 역시 발견된다. 1990년대 초반 마키 마크와 핑키 번치 로 활동했던 마크 월버그는 「혹성 탈출」등 팀 버튼의 영화나 「매그놀리아」로 베를린 국제 영화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서 큰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하다. 중국어권 스타들은 멀티 엔터테이너 지향성이 더욱 강하다. 장국영은 30여 장 이상의 음반을 발표한 싱어인 동시에 「아비정전」과 「패왕별희」를 비롯한 아시아 대표급 영화들에 출연한 대 스타였고, 액션 스타 성룡 역시 싱어로 오랫동안 활동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다. 홍콩의 영화계 스타들은 대부분 싱어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한국의 멀티 엔터테이너들이 현재 중국어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인다.

멀티 엔터테이너, 시장논리로 키워져선 안 돼

비 외에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엿보이는 멀티 엔터테이너들은 많다. 그 중에서도 아이돌 그룹 신화 출신의 두 멤버가 보여주는 가능성은 매우 희망적이다. 드라마 「친국의 아이들」에서 놀라운 연기력을 보여줬던 김동원은 비운의 영화 「돌려차기」를 통해서 다재다능한 영화계 스타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또 최근 드라마 「슬픔이여 안녕」에서는 이제 연기자로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얻어냈다. 드라마 「신입사원」과 영화 「6월의 일기」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에릭(문정혁) 역시 주목받을만한 연기력과 신체적 조건을 갖췄다. 「6월의 일기」에서 아직은 어색한 손 처리가 지적받은 바 있지만 대중음악인 출신 영화배우로서 데뷔작을 안정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여성 댄스 그룹 샤크라 출신의

로 2005년 국민드라마 중 한편인 「내이름은 김삼순」에서 조연으로 좋은 연기를 펼쳤던 러원은 주연작 「가을 소나기」가 시청률 면에서 큰 호감을 보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아직도 차세대를 이끌 중요한 연기자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멀티 엔터테이너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거의 모든 뮤지션들이 기회만 보이면 다른 분야로 뛰어들 자세를 잡고 있다. 오랫동안 인기 싱어로 활약했던 홍경민은 일일드라마 「사랑은 아무도 못말려」를 통해 연기자로의 변신을 꾀했고, 드라마 왕국의 재건을 꿈꾸며 런칭한 MBC의 야심작 「궁」에서 베이비 복스 출신의 윤은혜는 드라마 전체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데뷔작으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활약 중이다.

이렇게 멀티 엔터테이너들의 활약이 대중음악계의 '필수품'으로 확장되면서 대중음악계는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되며 노래도 좀 하는, 좋게 말하면 다재다능하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전문성보다는 호환성이 강한 신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유는 현재 대중음악 시장이 '대중음악 활동만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소위 '노래도 되고, 얼굴도 되는' 뮤지션들은 연기를 겸업으로 해야만 소속사에 만족스러운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연기자로서 가능성이 없는 대중음악 아티스트들은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성 출연자와 데이트 게임을 하거나 각종 서커스를 해야만 한다. 대중음악계의 어두운 현실이 결국 뮤지션들을 다른 필드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때 비와 같은 특급 멀티 엔터테이너의 출현은 전체 대중문화 시장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대중음악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몇몇 아티스트들에게는 괴로운 상황일 수도 있다. 핑클 출신의 성유리처럼 아직 연기



드라마 「신입사원」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에릭(문정혁)
사진:IMBC

'획적인 시장의 확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대중음악계 뿐만 아니라 영화계나 방송계 역시 큰 화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멀티 엔터테이너는 대중문화의 퓨전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는 있다. 하지만 멀티 엔터테이너들은 시장의 논리로 키워져서는 안 된다. 누구나 비가 될 수 없고 누구나 에릭이 될 수는 없다.

자로서 준비가 덜된 상황에 드라마의 주연배우가 되어 「천년지애」에서의 연기처럼 어이없고 황당한 연기로 오히려 인기와 주목을 끄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면 그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언제나 문제는 뭔가 히트상품이 등장하면 너도 나도 그것을 따라가고 천편일률적인 패턴의 대중 문화가 펼쳐진다는 데 있다. 멀티 엔터테이너 지향은 지금처럼 거의 모든 인기 엔터테이너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철저하게 개인의 재능과 가능성에 맡겨져야 할 것이지 멀티 엔터테이너를 처음부터 지향하고 전문적인 재능보다는 호환성에만 목숨을 거는 경우는 '노래도 신통찮은데 연기마저 못 봐줄만한' 엔터테이너들을 양산하게 돼 있다. 멀티 엔터테이너의 본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시장에서 활동하면서도 뮤지션으로서의 자격만을 붙들고 있는 보이는 모두가 멀티 엔터테이너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 대안처럼 느껴진다. 물론 보아가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멀티 엔터테이너들에 비해 확장성이나 호환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아니다. 적어도 그들 이상의 재능을 지녔으나 쉽게 영역 확장을 하지 않는 것은 모범적인 일인 것이다.

대중음악 시장의 어두운 불황은 더욱 좋은 노래와 양질의 음반을 발표하는 것으로 극복돼야 한다. 지금처럼 '획적인 시장의 확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결국 대중음악계 뿐만 아니라 영화계나 방송계 역시 큰 화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멀티 엔터테이너는 대중문화의 퓨전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는 있다. 하지만 멀티 엔터테이너들은 시장의 논리로 키워져서는 안 된다. 누구나 비가 될 수 없고 누구나 에릭이 될 수는 없다. ❦